대선판 달구는 빅 3 '책사대결'

대통령선거를 불과 9일 앞둔 현재 주요 후보진영의 지략 싸움이 치열하다. 각 후보의 책사들은 숨가쁘게 전개되는 대선무대의 뒤편에서 치밀한 판세분석과 전략수립을 하며 선거진영을 지휘하고 있다.

李 6인회의·서울시청 멤버 방향타 조정
鄭 '비례대표 3인방'·이강래씨 등 포진
昌 홍보-이흥주, 기획-강삼재씨 전면에

◇**이명박 후보**=노장 그룹과 소장파 그룹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선 노장그룹에선 최근 공식적으로는 해체되긴 했으나 이 후보와 함께 이른바 '6인회의'를 구성했던 멤버들(이상득 국회부의장, 박희태 김덕룡 이재오 의원,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이 여전히 중대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방향타를 조정하고 있다.

젊은 그룹 내에서는 이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시절부터 '복심'으로 불려온 정두언 당 선대위 총괄기획팀장이 돋보인다. 특히 호남 출신임을 강조하는 정 팀장은 캠프 내에서 선거전략 수립과 조직 관리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막후 실력자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의 '입'인 박형준 나경원 대변인, 당 선대위 전략기획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이방호 사무총장, 이동관 공보특보 등의 활약도 돋보인다.

이밖에 이춘식 특보부단장, 정태근 수행실장, 박영준 네트워크팀장, 강승규 커뮤니케이션팀장, 김희중 일정담당 비서관 등 이른바 '서울시청 멤버'들도 빼놓을 수 없다.

◇**정동영 후보**=현역 의원 가운데는 민병두 전략기획위원장, 박영선 지원실장, 김현미 대변인 등 '비례대표 3인방'이 최측근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사돈이기도 한 윤흥렬 가족행복위 총괄기획본부장은 선거 전문가로, 이번 대선에서 '안아주세요' 캠페인을 지휘했다.

정대철 총괄 상임선대위원장과 최연장자 이용희 국회 부의장은 정 후보가 힘들 때마다 조언을 구하는 상대다. 선임선대위원장인 박명광 의원은 후보의 당 의장 시절부터 곁을 지켰고,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선거기획통 이강래 의원은 중진과 정 후보 간 메신저 역할을 한다.

참모 그룹에선 방송콘텐츠본부에서 양형일 의원(본부장)과 TV토론 부문을 책임진 김현종 방송콘텐츠부본부장, 이평수 비서실 부실장, 전주고 후배인 양기대 공보특보, 보좌관 출신 정기남 공보특보 등이 활발히 움직인다.

◇**이회창 후보**='단암빌딩 멤버'들은 최측근이자 책사들이다. 이들은 이 후보가 2002년 대선 패배 이후 5년간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주변을 지켰던 소위 가신 그룹이다.

우선 이흥주 홍보팀장이 첫 손에 꼽힌다. 지난 1993년 국무총리로 취임한 이 후보에 의해 비서실장으로 전격 발탁된 이후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영화배우 심은하씨의 남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지상욱 박사는 현재 캠프에서 UCC 제작을 추진하는 등 젊은 감각으로 돕고 있다.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는 강삼재 전략기획팀장은 5선 의원 출신으로 풍부한 정치 경험을 발휘, 후보를 대신해 전면에 나서고 있다. 방송 시사토론 작가 출신인 이혜연 대변인은 2002년 이 후보의 토론 '과외교사'를 했던 경험을 살려 이 후보의 의중을 언론에 충실히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핵 포기 의사 믿는다"

盧대통령 CNN 인터뷰 "미래에도 한미관계 중요"

노무현 대통령은 8일 북한의 핵신고 문제와 관련, "나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해왔으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기본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뉴스 전문채널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핵무기를 갖지 않는 것이 갖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상황만 조성되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그와 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절대 불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대좌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직선적으로 얘기하지만 경청하고 유머도 사용하고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호감을 느끼게 한다"며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화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호평했다.

또 협상가로서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자기주장을 할 때는 하고 양보할 때는 확실하게 양보하고, 협상 자체에 유연성을 가진 협상가"라며 "비교적 어렵지 않은 상대방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한미관계와 관련, 노 대통령은 "취임 초 '반미감정을 가진 대통령'으로 소문나는 바람에 한미관계에서 첫번째 현안이 '나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라 합리주의자'란 점을 해명·설득하는 것이었다"며 "반미감정은 매우 왜곡되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 출범시 미국과의 의견차는 북핵문제 하나였다고 소개하면서 "부시 대통령과 참모들 중에는 보다 강경한 수단, 모든 옵션을 항상 고려하고 있고 그렇게 말해왔는데 한국에는 절대 불가능한 옵션이었다"고 회고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관계는 과거에도 중요했고 미래에도 중요하다"고 언급한 뒤 "때로 어두웠던 시절도 있고 긴밀한 협력의 시절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양국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삼성 특검법' 발효 임박, 검찰 수사 어떻게 되나

15일내 특검 임명…변협 추천 '주목'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10~11일께 관보를 통해 공포될 것으로 보여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법무부 장관의 부서와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0~11일께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특검법은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는 즉시 시행돼 효력이 생긴다.

◇ **발효 후 15일 안에 특검 임명**=특검법이 공포·발효되면 15일 이내에 특별검사가 임명된다.

특검법이 발효되면 국회의장은 2일 이내에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후보자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 의뢰한다.

변협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3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수사진 구성 등 준비기간(최장 20일)을 감안하면 특검 수사는 이르면 12월 말~내년 1월 초께, 늦으면 1월15일을 전후해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범위' 논란**=특검법 발효와 함께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제기되는 의견은 크게 ▲특검이 출범하면 사실상 검찰은 수사 권한이 없다 ▲특검이 본격 수사할 때까지는 검찰이 강도높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검찰측은 특검법이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도입된 것이라는 점 등 취지를 감안할 때 법 발효 이후에는 적극적 수사를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공명선거 기원 작은 음악회 광주시선관위는 9일 열흘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금남로 금남공원에서 '공명선거 기원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가족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 유권자들이 공연 도중 박수를 보내고 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한국 대선판, 역술·풍수에 빠지다!

FT, 이회창·정동영 후보 등 사연 소개

"한국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조상이 '문자 그대로' 무덤에서 돌아눕는다."

한국 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풍수를 비롯해 각종 역술에 의존하는 후보들의 모습이 다시 해외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 몇 달 전 선산을 이장한 대선 '삼수생' 이회창 후보의 사연 등을 통해 한국 대선판에 불고 있는 '풍수 바람'을 전했다.

이 후보는 풍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여 조상 묏자리를 좀 더 상서로운 장소로 이장한 경우로 소개됐다.

앞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지난 2005년 선산의 조상묘를 새단장한 바 있다.

신문은 대선에서 2차례 고배를 마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후 조상의 묘를 옮겼으며 세번째 도전인 지난 1997년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풍수 전문가 박미찬씨는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 과학"이라며 "조상의 묏자리를 이장한 뒤 운이 트인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역술가의 예언 역시 대선판의 단골 메뉴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진영에서는 이 후보의 사주에 '금(金)'이 4개나 들어있어 특별한 운을 상징한다며 의기양양하고 있다.

장안의 역술가들은 저마다 대선 결과를 둘러싼 '천기누설'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대통령리더십 연구소의 최진 소장은 "대선 후보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암시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믿고 싶어한다"며 "선두주자는 역술을 통해 승리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다른 후보들은 희망을 얻는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삼성은 지금 '복지부동'

삼성이 납작 엎드렸다.

'사업계획 수립과 인사'라는 중추 이슈는 말할 것도 없고 해외 전시회 비즈니스와 같은 글로벌 사업 진행과 자료관리 등 일상업무까지 삼성 비자금 의혹 쓰나미에 휘말린 형국이다.

7일 태평로 삼성본관에서 마주친 삼성 계열사 한 직원은 "이사가는 것 같다"며 본관 분위기를 전했다.

삼성의 자금 흐름을 추적중인 검찰에 더해 '삼성 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을 앞둔 가운데 회사 방침에 따라 과거자료를 정리한 짐이 늘어가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다른 한 직원은 "삼성SDS 동료에게 물어보니 '이제 내게 과거는 묻지마세요'라고 말하더라"고도 했다. 이처럼 실제 삼성 본관은 사실상 자료관리 비상체제를 매일 가동중인 상태다.

불가피한 업무에 필요한 소수 자료만 빼고 이번 의혹 사건과 관련이 전혀 없지만 오해를 살만한 모든 문서나 이메일 등 각종 자료를 폐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中 경제, 2020년 美 추월 세계 최대 경제대국 된다

중국은 경제 규모가 앞으로 10여년 후면 미국을 능가해 세계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8일 일본 언론매체들을 인용, 일본 경제연구센터가 최근 2050년까지의 세계 경제에 대한 이같은 장기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화폐로 국별 국내총생산(GDP)을 계산해 본 결과 중국의 GDP가 오는 2020년 직전 미국의 GDP를 추월하지만 2050년께에 이르면 다시 미국에 역전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베이징=연합뉴스